

# 올해도 찾아온 '얼굴 없는 삼계천사'

### 임실군에 3억4528만원 기부... 6년째 이어온 기부 누적액 24억원 돌파

얼굴도 신분도 밝히지 않는 일명 '삼계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임실군에 3억원이 넘는 거액의 통근 기부를 했다.

부모의 고향이 임실군 삼계면이라는 인연으로 올해까지 6년째 이어온 그의 불우이웃을 사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금도 24억원을 넘어섰다.

임실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얼굴 없는 삼계천사'가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3억4528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거액을 소리 없이 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얼굴없는 삼계천사의 선행은 2021년부터 6년째 이어 오고 있다. 기부 첫 해에는 3억7090만원, 2022년 4억3030만원, 2023년 4억5090만원, 2024년 4억2840만원, 2025년 4억106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거액의 기부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쾌척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누적액은 24억3600만원을 넘어섰다.

본인이 누구인지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는 조건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본인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람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 전



얼굴도 신분도 밝히지 않는 일명 '삼계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임실군에 3억원이 넘는 거액의 통근 기부를 했다.

반에 나눔문화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편지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번 기부금 해당 가정들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아이들이 꿈을 잃지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저소득층 684가구에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예년과 같은 기탁 조건과 방식이었으나 예년과 달리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 5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12개월로 늘였으며, 자녀 1인가구 월 17만원, 자녀 2인가구 월 23만원, 자녀 3인이상 가구 월 30만원씩 1년간 매월 같은 날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대상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만전을 기하고, 삼계천사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뜰 편지를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업무보고 청취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염봉섭 위원장은 사매산업단지의 규제 완화와 변전소 설치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매진을 당부하고, 이숙자 부위원장은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에 대해 사업종료 후에도 민간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소태수 위원은 공충산업의 조속한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하겠다고 주문하고, 이기열 위원은 지난해 AI 발생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농가와 산림 피해가 컸음을 지

적하며 방역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한수 위원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단지 기반 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들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명숙 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기숙사 건립, 인권보호, 고용실태 관리 등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영농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사정착비 지원 △소득기반 지원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순창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이사정착비 지원'은 초기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세대당 정액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2인 이하 세대 30만 원, 3인 이상 세대 50만 원이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소

득기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귀농 세대를 대상으로 영농 및 소득·생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주택 수리 또는 주택 신축 시 건축 공사비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비를 포함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연초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초기 신청이 필요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우수'

### 전북 지역특화형축제 공모사업 '우수축제' 선정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역특화형축제 공모사업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도비 2,8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7,800만 원 규모의 축제 예산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축제 준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역특화형축제 공모사업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지역특화형축제를 공모하고 있다.

2026년에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축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순창군은 이 가운데 우수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는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과 전곡민이 즐겨 찾는 음식인 떡볶이를 결합해 기획된 대표 먹거리 축제다. 단순한 음식 행사를 넘어 순창 고추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시작된 이 축제는 지난해 두 번째 개최를 통해 그 가능성과 성과를 한층 더 입증했다.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찾았고, 약 9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뒀다. 또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21점을 기록하며, 특히 먹거리 콘텐츠와 지역문화 홍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축제는 11월 중 이틀간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

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대학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찾아라 떡볶킹(AR 체험)',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쿡킹 클래스 'I'm Fine 떡볶이', 창의적인 요리 경연 프로그램 '떡볶이 대결'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순창군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떡볶이 판매 부스를 비롯해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 전통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미투어 프로그램 등은 축제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지역특화형축제 우수 선정은 순창민의 고유한 콘텐츠가 공감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주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순창 고추장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시민 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 나선다

### 남원시보건소,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본격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본격 운영한다.



건강해집(GYM) 1기를 활기차게 진행하며, 올해는 '오늘운동완료'를 확대·개편하여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 연계 운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건강증진센터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에는 △체력단련실 운영 △체성분 및 인바디 측정 △식습관 및 운동 상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및 등록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연계 △맞춤형 모자보건사업 연계 △절주 상담실 운영 △간기실천을 위한 워크숍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모바일 플랫폼 사업 등으로 시민 누구나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기별로 70명을 대상으로 체력단련실 자율운동을 운영하고, 성인 대상 비만 예방 프로그램인 '오늘도

건강해집(GYM) 1기를 활기차게 진행하며, 올해는 '오늘운동완료'를 확대·개편하여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 연계 운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예방 미션,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유소년 축구·초등 테니스 전지훈련팀 유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9일부터 동절기 유소년 축구와 초등 테니스 전지훈련팀 84여 명을 유치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의 열기로 지역 전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유소년팀의 1차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2차 훈련이 이어지고, 게이트볼 전지훈련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운영,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도 2월 2일부터 시작해 7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이번 유소년 축구 동계 전지훈련은 스토브리그 형식의 훈련과 연습경기로 운영되며, 전국 28개 팀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반대비체육센터 1·2구장 등 지역 내 축구장과 체육시설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고,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집중 훈련을 진행한다.

전지훈련 기간에는 선수단과 함께 방문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숙박업소는 물론 마트, 카페,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우수한 체육시설과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바탕으로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며, 종목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9일부터 동절기 유소년 축구와 초등 테니스 전지훈련팀 84여 명을 유치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의 열기로 지역 전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유소년팀의 1차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2차 훈련이 이어지고, 게이트볼 전지훈련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운영,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도 2월 2일부터 시작해 7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이번 유소년 축구 동계 전지훈련은 스토브리그 형식의 훈련과 연습경기로 운영되며, 전국 28개 팀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반대비체육센터 1·2구장 등 지역 내 축구장과 체육시설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고,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집중 훈련을 진행한다.

전지훈련 기간에는 선수단과 함께 방문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숙박업소는 물론 마트, 카페,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